

정보통신부 폐지의 영향과 IT 경쟁력 변화

유황준, 윤현석, 이상혁, 가민경, 김봉현, 조동욱
충북도립대학교 전자정보계열
kyoyhj@naver.com

The Influence of MIC Abolition and the Change of IT Competition Power

Hwang-Jun Yoo, Hyun-Seok Yun, Sang-Hyeok Lee, Min-Kyoung Ka,
Bong-Hyun Kim, Dong-Uk Cho
School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른 전체 IT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정부부서 변화 및 부처 간 예산의 변화, 주요 IT 경쟁력지수현황, IT 수출입, R&D IT 부문 성과와 정보통신부 부활에 대한 의견의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IT정책이 어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서론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체신부란 명칭으로 시작된 통신 관련부처는 1994년 문민정부시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1세기 정보사회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 산업을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공보처 및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통신부가 만들어졌다. 94년 이전에는 기능이 서비스 정책에서만 국한되었지만 정보통신부가 되면서 그 기능이 서비스, 네트워크, 정보통신기기, S/W정책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또한 참여정부 때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문화를 지원하여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일부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일부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로, 일부는 문화관광부와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부서의 변화로 인한 정보통신부의 폐지와 더불어 발생한 득과 실은 무엇이며 현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난 현재 IT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정부부서 변화 및 부처 간 예산 변화

모든 정부의 시작이 그러하듯이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정보부처의 개편이 있었다. 그 와중에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그 역할이 다른 여러부로 통합되었는데 그것은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로, IT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정책, 규제는 방송통신위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는 문화관광부 등으로 분산되었다. 이것은 IT정책에 대한 총괄기능과 중심점이 사라진 것으로 그 폐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1] 2000년 ~ 2008년도 정보통신부 예산

연 도	예 산
2 0 0 0	약 3800억
2 0 0 1	약 4300억
2 0 0 2	약 4500억
2 0 0 3	약 5000억
2 0 0 4	약 5100억
2 0 0 5	약 5600억
2 0 0 6	약 5500억
2 0 0 7	약 6800억
2 0 0 8	약 4400억

우선 상기의 표는 참여정부와 국민정부시절 정통

부의 예산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정부에서의 IT 예산이 상당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현 정부들어 그 역할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지면서 이 부분에 투자되었던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 지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주요 IT 경쟁력 지수 현황

아래의 [그림 1]과 [표 2]에 나온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시절 IT산업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1].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IT산업을 정보통신기능보다는 인프라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 강해 그 결과 IT 고유의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여 한국의 IT 경쟁력은 2007년 3위였다가 2008년 8위, 2009년 16위, 2011년 19위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노르웨이, 아일랜드, 일본, 이스라엘, 스위스 등에게 IT경쟁력을 모두 추월을 당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로 인해 'IT 홀대론'이 제기되어 정부가 대통령 IT특보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지수명	발표	한국순위(조사대상국가수)							주요국순위
		'03	'04	'05	'06	'07	'08	'09	
정보통신발전지수(DI) (첨단지털기회지수DOI)	ITU	-	-	1 (40)	1 (180)	1 (181)		2 (154)	스웨덴(1), 덴마크(3), 홍콩(11), 일본(12), 미국(17)
네트워크 준비지수	WEF	-	20 (102)	24 (104)	14 (115)	19 (122)	9 (127)	11 (134)	덴마크(1), 스웨덴(2), 미국(3), 싱가포르(4)
글로벌경쟁력지수 [기술경쟁력지수]	WEF	18 [6] (102)	29 [9] (104)	17 [7] (117)	24 [18] (125)	11 [7] (131)	13 [13] (134)	19 [15] (133)	네덜란드(1), 스웨덴(2), 싱가포르(7), 홍콩(10), 미국(11), 일본(21)
e-Readiness	EU /IBM	16 (60)	14 (64)	18 (65)	18 (68)	16 (69)	15 (70)	19 (70)	덴마크(1), 스웨덴(2), 미국(5), 싱가포르(7), 홍콩(8), 일본(22)
IT 경쟁력 지수	EU /BSA	-	-	-	-	3 (64)	8 (66)	16 (66)	미국(1), 핀란드(2), 스웨덴(3), 싱가포르(9)
국가경쟁력지수 (기술인프라부문)	IMD	27 (59)	8 (60)	2 (60)	6 (61)	6 (55)	14 (55)	14 (57)	미국(1), 싱가포르(2), 홍콩(6), 대만(11), 일본(16)
전자정부준비지수	UN	13 (191)	5 (191)	5 (191)	-	-	6 (192)		스웨덴(1), 덴마크(2), 미국(4), 일본(11)

[그림 1] 주요 IT 경쟁력 지수 발표 현황

[표 2] 역대 정부의 S/W 육성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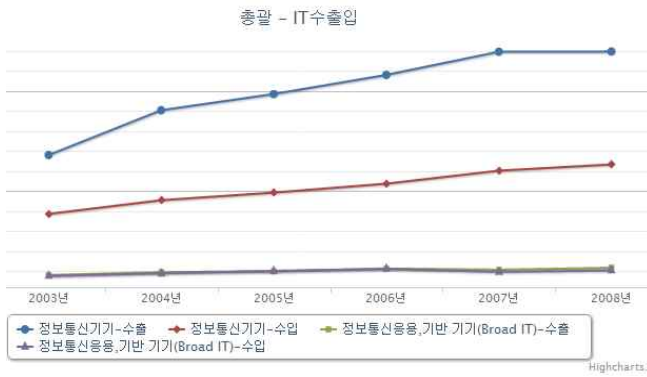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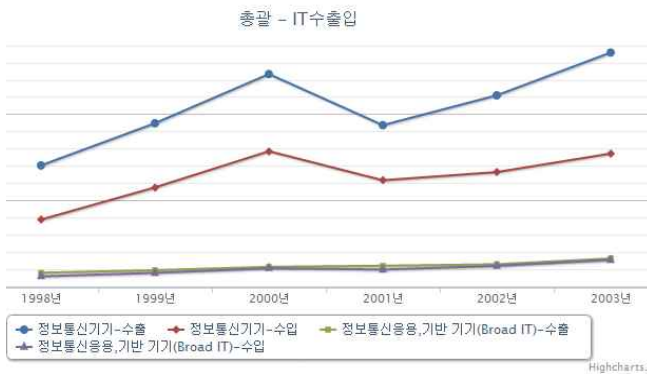
정 부	주요 S/W산업	결 과
국민의 정부	정보통신 기술 개발 5개년 계획	글로벌 IT붐 호응, 전국 광통신망 구축
참여 정부	IT 839 계획	S/W산업 집중 육성, 디지털 콘텐츠와 IT SOC 등 성장 동력화
현 정부	뉴IT 정책	IT를 문화, 산업 접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기대

추락하는 IT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주무가 어디인 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인데 영국의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떨어진 원인으로 IT 특허 출원수의 하락, 즉 R&D 환경 부문의 지표가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2].

4. IT 수출입 및 R&D IT 부문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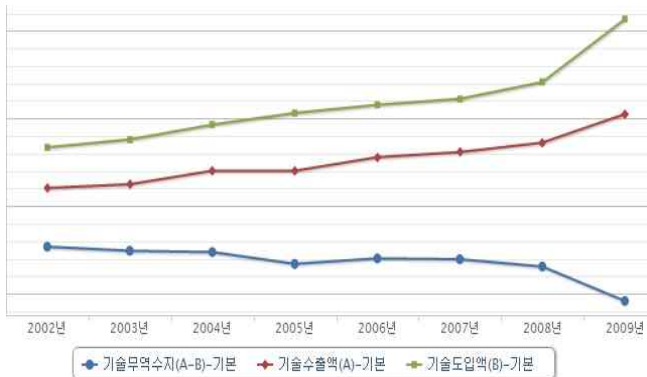
아래 [그림 2]에 보이는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와 국민정부 시절에 IT수·출입이 점점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바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면에서 IT산업을 견인했기 때문이다[3]. 물론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도 2009년에 그 수치가 떨어졌다가 2010년에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주요 IT품목의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반도체로 말미암아 반도체 수출이 늘고 있지만 다른 IT의 H/W분야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연도별 IT 수출입

아래 [그림 3]에서는 붉은색의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녹색의 기술도입액이 매해 수출액의 2배에 달한다[3].



[그림 3] 2002년 ~ 2009년 R&D IT부문 성과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화차원	464	547	400	379	2,026	805	856	460	439	402	361	313	339
대학원	-	65	198	130	437	410	772	723	565	564	517	496	441
재직자	88	294	115	52	630	617	131	107	74	169	180	169	44
취업계	-	105	117	129	1,218	724	50	15	-	-	-	-	-
합계	552	1,010	830	690	4,311	2,556	1,809	1,305	1,078	1,145	1,063	978	824

[그림 4] IT인력양성사업 투자규모 (단위 : 억원)

IT인력양성부분도 위의 [그림 4]와 같이 참여정부 시절에는 IT인력지원 예산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현 정부 이후 예산이 점점 삭감되면서 2010년에는 약 700억원까지 떨어져 사람이 경쟁력인 인력양성부분도 향후 더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여겨진다[4].

5. 대처 방안

종합적으로 IT의 경쟁력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IT 컨트롤 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물론 “IT경쟁력 하락, 컨트롤타워 부재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통부 부활이 얘기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5] 애초에 하나의 부처에서 실행되던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실행시키려 하면 결국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종전 과기부와 정통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폐지된 정통부의 부활보다는 적어도 정보통신업계를 총괄가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가 전 반적인 견해이다[5][6].

둘째, 현재 IT의 경쟁력 파워는 H/W에서 S/W로 그 흐름이 완전히 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 IT산업 중 H/W가 차지하는 비중이 73%에 이르고 있다. 이를 타개할 적극적인 S/W 육성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떨어져가는 IT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최고급 SW 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아래 [표 3]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 즉,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으로 S/W 분야 최고급 인재를 100명 선발, 최고 전문가 30인을 통한 도제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IT 명품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 연구중심 교과과정, 도제식·다학제적 교육 등을 통해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표 3] 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분	S/W 인력양성 계획 (단위 : 명)										
	10년		11년		12년		13년		계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교육	공급	
고급인재	마에스트로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00	3000
	고용계약형	1800	350	2200	700	2250	750	2250	750	3700	2200
융합인재	역량강화	2000	2000	2100	2100	2200	2200	2300	2300	6600	6600
	채용연수	-	-	1000	7000	1000	7000	1000	7000	3000	21000
계		2200	2300	3200	2300	3300	3300	3300	3300	11000	9200
		2000	4000	9000	5000	0	6000	1000	2000	22000	22000
		8000	3000	2000	7000	2000	7000	2000	7000	22000	22000
		0	5000	0	0	5000	5000	5000	5000	0	0

이상의 프로그램들은 연도별로 S/W 인력을 양하여 향후 앞으로 3년에 걸쳐 약 9,000여명의 S/W인적자원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의견으로 이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 여겨진다[7].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정통부를 폐지함으로써 야기된 IT 분야의 경쟁력 하락 부분을 여러 가지 척도로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위기의 'IT코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IT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고 IT의 힘을 H/W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S/W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적 정책방안이 만들어져야 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S/W 시장 점유율이 1.7%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부분이 게임 S/W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타개할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H/W분야 최대수요처인 미국이 이중침체위기에, 프리미엄 제품 소비국인 유럽 역시 재정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더 더욱 S/W분야

육성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예로서 현재 삼성 스마트폰이 판매량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이 역시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이를 유료화할 경우 극한적으로는 단순 단말기 제조업체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IT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H/W 중심의 경쟁력을 S/W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를 총괄할 IT 컨트롤 타워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1] 문형돈, 조성선, 김진희, 이성희, 김용균, 정해식, 김학훈, "IT Insight 주요 IT 경쟁력 지수 현황 및 시사점", INSIGHT 2009-0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9.
- [2] 국내 IT산업 경쟁력 지수 세계 19위로 하락, http://www.bsakorea.or.kr/news/report_view.html?page=1&strWhere=&strKey=&num=152, 2011.
- [3] 정부 IT투자금액 발표, 착시현상 주의, http://www.digitaldaily.co.kr/news/news_view.php?uid=59470, 디지털데일, 심재석 기자, 2010.02.08
- [4] 지식경제부 통계포털(ITSTAT)
- [5] <http://www.cellular.co.kr/?p=34547>, 셀룰러뉴스, 박영주 기자, 2011.
- [6]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92659&g_menu=050220&rff=nv, 채송무 기자, 2011.
- [7] 지식경제부, 2011년도 SW산업 육성 대책, 2011.